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발전시키신 현명한 령도

김 명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관리가 약화되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와 질서가 형클어지면 비사회주의적현상, 자본주의적요소가 자라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낼수도 없게 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21권 465페이지)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사회이며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갈 때에만 자기의 본태를 잃지 않고 계속 고수해나갈수 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을뿐아니라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집단경리제도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2(2003)년 5월 21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담화들과 로작들에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4월 8일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와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우월성과 그것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농촌경리는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이며 오늘의 농업생산은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대적농업생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협동농장관리운영을 개선강화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방향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정치사상적우월성, 집단주의적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라

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마다 모내기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일시에 끝내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농을 하기때문에 모내기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시에 끝낸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모내기를 일시에 끝내는것만 보아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농촌에는 사회주의의 본태가 살아있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농민들의 애국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리형태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탈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의 길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풀어나갔다.

농촌경리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본태를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였다.

농업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대중의 애국열의를 발양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옹호고수하고 적극 발양시켜나가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사소한 흔들림이 없이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다음으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가는 방법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민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똑바로 가지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려면 그들에 대한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0(2001)년 4월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농촌경리부문에서 농민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양어와 축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토지정리방침을 비롯하여 현시기 우리 당이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방침들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과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설선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농민들이 일을 잘하지 않으면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으며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농민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

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농사일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지도단위들이 지난 시기와 대비도 되지 않게 소출을 높이고 있는것은 농민들이 농사일에 사상적으로 달라붙었기때문일것이라고, 알곡소출을 높이는 기본예비는 농민들의 사상을 발동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민들을 불러일으키는데서 기본은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농촌당조직들에서는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데를 명심하고 그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 농민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교양사업을 농촌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잘 리용하여 실속있게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하겠다는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농사일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자면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농촌의 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7(2008)년 12월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시여 청년작업반 2분조원들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하는것을 보시고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비롯하여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하여 그들이 혁명의 계승자답게 일을 잘하도록 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5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농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인것만큼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가 풀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농사를 잘 짓자면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9(2010)년 4월 26일, 5월 8일 국립연극단에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이 작품이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고 올해공동사설에서도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것만큼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큰 자극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희극 《산울림》을 전국의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에게 다 보여주도록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진행된 여러 지방들에서의 경희극 《산울림》순회공연은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업부문 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임무를 깊이 새기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또하나의 계기가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 선군시대의 농민영웅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국농민들이 나올수 있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다음으로 분조관리제를 농촌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는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

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이다.

분조관리제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하는것은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로부터 분조관리제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잘 적용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1(2002)년 5월 국가적조치에 따라 생활비와 전반적상품가격이 새로 정해지는데 맞게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에 로력과 생산수단을 고정시키고 계획을 준 다음 그 수행 정도에 따라 로력일수를 평가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었으나 당시 일부 분조들에서 재산관리는 거의 하지 않고 로력일평가밖에 특별히 하는것이 없었으며 그것도 가을에 가서는 농장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재계산하여 평균적으로 분배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분배방법대신 생산의 기층단위인 분조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번 로력일만큼 분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대기준을 바로 정하는 문제,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관리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본보기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6(2007)년 11월 어느 한 군에서 분조관리제를 옳바로 실시하고있는 정형을 료해하시고 이 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되게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특히 알곡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한 분조의 농장원들에 대한 평양견학, 농민휴양을 비롯한 정치적평가를 앞세우면서 물질적평가사업을 잘 배합하여 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농업성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분조관리제를 비롯한 가장 우월한 농촌경리운영방법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 농장들의 실정에 맞게 분조를 작게 조직하거나 분조들에서 포전을 고정분립시켜 농장원들의 책임성을 높여나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갔다.

성에서는 분조의 로력자수와 경지면적, 부림소,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들에 대한 리용 등 분조관리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가 훌륭히 실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굳건히 고수되고 날을 따라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될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촌경리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